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윤곽'... 2024년 말 준공 목표

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주)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합작

함평군이 지역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통해 함평읍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의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30일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근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복지서비스 공간조성 및 함평읍사무소와의 복합화 추진으로 행정·문화·복지 등 원스톱 서비

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중심지 기능강화와 더불어 배후마을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공모에서는 (주)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공동 합작으로 출품한 작품(조감도)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등이 군 환경과 조화롭고 주변 시설과 연계성·친환경성 등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총 사업비 207억원이 투입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함평읍 기각리 789-3번지(함평군 청 옆 부지) 일원에 연면적 3,797㎡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을 비롯해 지상1층은 함평읍사무소, 공동보육시설, 건강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2층은 공유주방, 대회의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된다.

군은 설계 당선작 선정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착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어울림커뮤니티센터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함평'에 걸맞은 실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립 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농지 투기 방지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농지위원 54명 위촉

무안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5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무안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은 반드시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는 14일 이내로 취득자의 영농여건 의지,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대상 농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농지위원회 제도 정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농지위원과 농지 담당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가가 농지법, 농지위원의 역할과 운영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농지위원과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산 군수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유달시립테니스장·정구장 전천후 시설 조성

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국비 20억원 확보

목포시가 구)유달경기장 부지에 위치한 유달시립테니스장과 정구장을 전면 개보수, 막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전천후 체육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남에서 최대 규모의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유달시립테니스장과 정구장은 지난 1987년에 준공된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담장 균열 및 침하, 노출된 전기 배선으로 인한 재해 및 화재 위험 등의 문제와 야외체육시

설의 특성상 날씨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을 반영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2023년 4월까지 마치고 착공해 2023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전천후 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 5,400㎡의 지붕 막구조물 설치하고, 테니스장·정구장 및 사무동을 전면 개보수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목포=기동채재본부

영광군, 서울시 대학생 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

영광군은 지난 26일, 27일 서울시 대학생 지역상생 홍보단 "트립메이트" 13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트립메이트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하고 확산하는 「대학생 지역상생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모집한 대학생 관광 홍보기자단이다. 대학생의 신선한 안목으로 서울과 지방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홍보한다.

영광 팸투어팀은 첫날 영광 배수에 위치한 한옥 체험마을에서 모시 천연염색을 했다. 이어 간다라 불교 문화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숲쟁이 공원 등을 방문하여 꽃과 나무사이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걸으며 법성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오후에는 기암괴석과 황홀한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배수해안도로로 이동하여 노을전망대 위 스카이워크를 걸으



며 인생샷을 남겼다.

이튿날은 영광군 문화관광해설사의 명쾌한 해설을 들으며 천년고찰 불갑사 전통 여행을 했다. 영광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함께 불갑 상사화피는마을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며 흥미를 더했다.

팸투어 참가자 중 한명은 "여름의 끝자락 영광에서 역사, 관광과 체험이 결합된 특별한 여행을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사'

총서 발간...2년 추진 성과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는(이사장 오병근)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한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사」 총서를 발간한다.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은 1923년부터 1928년까지 5년 동안 암태도, 지도, 도초도, 자은도, 매화도, 하의도 지역에서 높은 소작료 인상과 노동착취를 감행한 일제와 불의한 지주의 탄압에 맞서 싸운 농민운동이다.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을 연구하고 독립유공자를 찾고자 2020년 7월에 출범한 신안군 농민운동기념사업회는 2년 여 동안 추진한 성과 등을 토대로 발간한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사'는 암태도 외 5개 섬에서 일어난 항일농민운동의 전개과정, 항일농민운동 주요인물, 당시 농민운동에 참여한 325명 중 구속 확인된 111명의 판결문 및 수감기록, 신문기록 등을 수집하고, 농민운동 수감자 후손을 찾아 24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는 성과를 통해 집대성하여 항일농민운동의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쁜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